

결핵퇴치 위해 전세계가 하나되어야 할 때

Annik Rouillon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명예 사무총장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월 24일 세계결핵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결핵에 대한 인식 및 결핵퇴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1982년에 아프리카 말리 공화국 결핵협회의 IUATLD의 한 회원이 로버트 코호의 결핵균 발견 100주년을 기념하자는 제안을 하여 IUAT 총회에서 통과, 이날을 세계결핵의 날로 제정하였다.

IUAT와 세계보건기구 후원하에 각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각종 기념행사를 가져 1990년에는 파리, 1991년에는 네덜란드에서 항 결핵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각 나라별로 개최하고 있다.

IUAT와 WHO는 '81년, '82년 두 해에 걸쳐 결핵논문과 항결핵협회 활동에 관한 기사를 담은 "결핵 100주년 기념특집"을 발간, 배포하였고 1982년에는 코호 100주년 기념메달을 제작하여 항결핵을 위해 헌신적으로 조사연구한 공로자에게 수여했다.

그리고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코호에게 수여한 후 복사한 두 개의 "코호메달"은 영국의 Wallace 교수와 IUAT건 이사인 덴마크의 Johannes Holm 박사에게 수여됐다.

코호자신이 배양한 결핵균이 실험용 동물 몸에서 결핵병변을 일으키고 있음을 실증한 1년에 걸쳐 완성된 논문을 보고 Tubercle 편집장 R. Bignall은 그의 논문이 매우 명쾌하고 논리정연하다고 회고한다.

코호가 발표를 마치자 단 한마디의 말도 박수소리도 없이 장내는 숙연 그 자체였다.

이 숙연한 분위기는 그의 논문에 대한 청중들의 경외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표정은 그의 노력에 감탄하고 인류의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노력과 업적에 비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호가 당시의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반문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대들은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추진력으로 결핵군의 퇴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코호의 발표이후 흥분상태는 지속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결핵군 그 자체는 잊혀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윈트겐의 엑스선 폐촬영 등으로 군 발견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최근 수십년 동안 결핵군은 “재발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감염, 발병, 진단, 약제발견 등 모든 분야에 이르는 결핵과의 투쟁단계, 오늘날 특히 관심을 끌고있는 약제내성에 이르기까지 코호의 군발견의 업적을 초석으로 삼아 재발견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우리는 용기, 힘 및 상상력을 동원하여 결핵을 이 지상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 도전해야 할 때이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결핵

알베르타지역의 결핵유병률은 1989년 이후 67%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은 99%의 완치율, 90% 예방이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2,000년까지 결핵환자는 현재의 2배 혹은 그 이상이 되리라 예상되며 현재 연간 800만 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3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캐나다결핵퇴치협회는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과 함께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 행사를 주관한다. 그후 치료약의 발견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결핵환자수는 군발견당시의 수준만큼이나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20세기 초 정부와 결핵협회 및 폐협회 같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항결핵운동에 참여 결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950년대 약제들의 개발로 환자수는 크게 줄게되어 결핵과의 전쟁이 승리로 굳혀지는 듯한 순간 우리는 결핵의 위험을 망각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17억의 감염자가 있는데 이중 10%는 고연령층이며 기회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고연령층, 결핵 발병률이 높은 위험 지역의 주민 그리고 인체내 면역 체계가 파괴된 자 즉 HIV 보균자들이 매우 위험하다.

최근 결핵환자의 발견 및 치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결핵관리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감독상의 난점, 약제내성 환자의 증가, 치료비용의 증가, 결핵에 대한 무관심 등의 요인은 결핵의 부활을 예고하는 적신호인 것이다.

이제 결핵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 연구원같은 보건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과학자 및 일반국민 모두 결핵퇴치라는 명제하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할 때이다. 결핵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산, 행동 등 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결핵퇴치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